

# LG, AI로 ‘세상에 없던 디자인’ 창조한다… 파슨스와 협업

초거대 AI ‘액사원’ 방법론 연구  
디자인 생성 창작 플랫폼 개발  
한문장으로 7분만에 이미지 256장  
“인간의 창의성·생산성 극대화 유도”

LG 초거대 인공지능(AI) 액사원이  
파슨스와 협업한다.

LG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슨스 캠퍼스에서 ‘LG-파슨스 크리에이티브 AI 리서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3년간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패션 및 미디어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한 파슨스와 LG AI 연구원이 초거대 AI 액사원(EXAONE) 기반으로 디자인 및 예술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 및 방법론을 공동 연구하는 내용이다. LG AI 연구원은 공동 연구 결과물을 활용해 ‘전문 디자이너 및 예술가와 협업하는 AI 서비스’를 고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LG AI 연구원은 이를 위해 액사원 아틀리에 서비스를 개발했다. 디자이너와 AI가 협업해 창조적 디자인을 생성하는 창작 플랫폼이다. 새롭고 참신한 이미지를 찾는 디자이너들이 아이디어



미국 뉴욕 파슨스 캠퍼스에서 LG AI 연구원과 파슨스 관계자들이 공동 연구 파트너십 체결 후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권좌근 LG AI 연구원, 앤드 브라운 파슨스 연구처장, 임정기 파슨스 디자인전략 및 관리 교수, 이본 왓슨 파슨스 총괄학장,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신시아 로슨 하라밀로 파슨스 디자인전략 스쿨 학장, 벤 배리 파슨스 패션 스쿨 학장, 맥 카프만 파슨스 개발부 VP.

/LG전자

를 현실에서 시각적인 이미지로 구현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점에 확인해 개발했다.

LG AI 연구원은 파슨스와 ‘액사원 아틀리에’로 전문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액사원 아틀리에’ 플랫폼의 두뇌에 해당하는 ‘액사원’은 텍스트와 결합된 고해상도 이미지 3억 5000만 장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해 언어의 맥락까지 이해하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Text to Image)하는 능력을 갖춘 초거대 AI로 하

나의 문장만으로도 7분 만에 256장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LG AI 연구원은 디자이너가 사진과 그림, 음성과 영상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경험한 느낌과 생각을 플랫폼에 기록해 놓으면 ‘액사원’이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7일에는 파슨스와 ‘인간과 AI의 디자인 협업 사례와 가능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파슨스 학생들이 참여해 이틀간 구현하고 싶은 디자인 콘셉트를 ‘액사원 아틀리에’를 활용해 작업한 뒤 결과물을 발표하는 해

커톤도 준비했다.

김승환 LG AI 연구원 비전랩장은 “디자이너가 액사원과 함께 세상에 없던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반복하며, 자신만의 창의적인 디자인 콘셉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와 인간의 협업이 단순히 신기한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의미를 넘어 디자이너의 창의력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확인하고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시아 로슨 하라밀로 파슨스 디자인 전략 스쿨 학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하는 아트, 디자인, 창의성 그리

고 AI와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과정보다 미래 지향적인 일은 없다”며, “시스템부터 서비스, 커뮤니티, 미래까지 무형을 디자인하는 파슨스 디자인전략 스쿨의 구성원들이 이번 협업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며,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벤 배리 패션 스쿨 학장은 “AI 기술 리더인 LG와 손잡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창의성과 기술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함께 연구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는 파슨스와 협업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명 디자인 스쿨과 기업들과 협업하며 크리에이티브 AI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파슨스와의 협업을 통해 인간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돋는 AI 디자인 전문가를 만들고자 한다”며, “단순히 그림을 그려내는 AI가 아닌 디자이너들과 호흡하고 그들의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전문가 AI로 활약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고 액사원 아틀리에를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현대제철, 세계 첫 ‘저탄소 고급 판재’ 생산

차량용 초고장력강 압연 기술 활용  
고로 대비 탄소배출 30% 이상 절감

현대제철이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발생을 크게 줄인 ‘저탄소 고급 판재’ 생산에 첫 발을 내딛었다.

현대제철은 세계 최초로 전기로를 활용해 1.0GPa(기기파스칼·단위면적당 100kg의 하중을 견디는 강도)급 고급 판재 시험 생산과 부품 제작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미세 성분을 제어할 수 있는 특수강 전기로로 정련 기술과 자동 차용 초고장력강 압연 기술을 활용해 기존 전기로에서는 생산할 수 없었던

고급 판재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저탄소판재는 고로에서 철광석과 석탄을 환원시켜 만든 쇳물을 대신 전기로에서 직접환원철과 철스크랩(고철)을 사용해 생산된 쇳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고로보다도 탄소 배출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전기로로 일부 자동차용 강재를 생산한 사례는 있었지만, 1.0GPa급 이상 고강도 제품을 전기로로 생산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현대제철은 기존 전기로와 차별화된 정련 설비와 자동차용 외판재·초고장력 강 생산 노하우, 현대차·기아 기초소재

연구센터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신규 설비가 아닌 보유 설비를 활용해 저탄소 고급 판재 생산에 성공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전기로 기반 탄소중립 철강 생산체제인 ‘하이큐브’를 통해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자동차 강판 등 고급 판재류를 생산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시험생산 성공으로 현대제철은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고급 제품 공급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탄소중립 기술을 통해 저탄소 제품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티웨이항공 안전운항 위한 정비인프라 강화

A330 기종 예비 엔진 도입

티웨이항공이 A330 기종의 예비 엔진을 도입하고 토탈케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A330-300 항공기 3대를 도입한 티웨이항공은 최근 해당 기종의 예비 엔진 1기를 국내로 도입했다. 안전 운항 체계 및 정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차원으로, 향후 엔진 수리 및 각종 정비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티웨이항공은 지난 6월 세계적 인 엔진 제조사 롤스로이스(Rolls-Ro

ycer)와 A330 기종에 장착되는 ‘Trent 700 엔진’에 대한 토탈케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엔진 운영과 안정적인 정비 시스템을 갖춘 바 있다. 티웨이항공 측은 “이번 예비엔진 도입을 통해 항공기의 가용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 중이다.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롤스로이스의 Trent 700 엔진은 여객기와 화물기를 합친 A330 기종의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엔진으로 꼽힌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상반기 A330-300을 3기 도입한 이후 두 차례 운항 차질을 빚어 이번 예비 엔진 도입이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허정운 기자 zelkova@

## SK하이닉스 신개념 해외출장 프로그램 시행

‘GXP’ 5주간 해외사업장서 업무

SK하이닉스가 임직원에 해외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SK하이닉스는 사내 프로그램 ‘GP’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GXP는 5주간 해외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번달 지원자를 모집하고 다음달 중 대상자를 발표해 연내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

GXP는 지역을 선택하고 기존 업무도 현지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데에서 해외 출장과 차이가 있다. 근무시간 내에 현지 업무와 한국 업무를 나눠 수행하게 된다.

근무지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의 SK하이닉스 해외법인과 함께 네덜란드 ASML, 미국 램리서치, 일본 도쿄 일렉트론 등 SK하이닉스와 제휴한 협력기업이다.

규모는 신청자 수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해외 출장지에 맞춰 항공, 숙박, 렌터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GXP는 SK하이닉스 인재양성 일환이다. 박정호 부회장이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성장 중심 회사를 만들겠다 선언한 이후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커리어 패스 설계를 돋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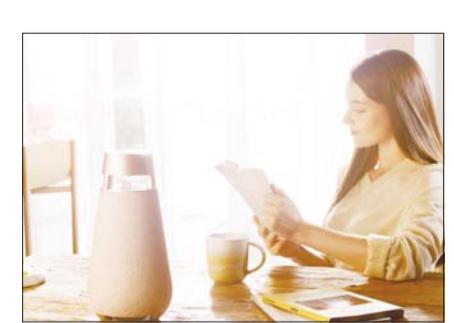
## 무선스피커 ‘LG 엑스붐 360’ 신형 출시

화병 닮은 디자인, 장식으로도 탁월

LG전자 무선 스피커 엑스붐360이 업그레이드됐다.

LG전자는 14일 LG 엑스붐 신제품(XO3Q·사진)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품은 화병을 닮은 유선형 본체와 외관에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멜란지 패브릭 소재를 적용해 어느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린다.

스피커 시스템은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 ▲저음을 내는 우퍼 ▲중음을 재생하는 미드레인지 등 3웨이로 구성된다. 폭넓은 음역의 소리를 360° 전방향으로 왜곡 없이 균일하게 전달해 제품을 설치한 공간 내 어느 위치에서 도 최적의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다. 최



대 출력은 50와트(W)다.

또 최고급 오디오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를 적용해 음질을 극대화했다. 트위터에 표면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실크 소재로 더 풍부하고 섬세한 고음을 구현하고, 미드레인지의 진동판에는 가볍고 탄성이 좋은 유리섬유 소재로 역동성을 높였다. 출하가는 39만 9000 원이다.

/김재웅 기자